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6호 [루게 제23433호] 주체100 (2011)년 4월 26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건군절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9돐에 즈음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건군절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경축공연을 보게 된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하여 관람자들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정의 파도가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주체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

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관람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조선인민군 창건 79돐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정은동지, 리영호동지, 김영춘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태종수동지, 김경해동지, 문경덕동지, 우동충동지, 주규창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경옥동지, 김원홍동지, 김명국동지, 정명도동지, 리병철동지, 최부일동지, 김영철동지, 윤정린동지, 인민보안부장 리명수동지,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동지,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연 무대에는 남성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조선인민군가>, <유격대행진곡>,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관현악과 남성

합창 <밀림이 설레이나>,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남성 2중창 <보람찬 병사시절>,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전사의 념원>, <전선에서 만나자>, <어디가나 잊지 말자 우리의 우정>,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선군조선의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혁명의 불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나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찬 로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 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함성인양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들으면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령장들의 현명한 령도따라 역사의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여온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켜보았으며 사회주의보루, 혁명의 보루로 위용떨치는 주체의 우리 조국을 영원히 빛내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강성대국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화같은 흠모심의 분출로 하여 장내는 총성의 대하마냥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듯

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이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를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고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근 80성상에 걸치는 조선인민군의 투쟁력사는 선군혁명의 맨 앞장에서 고귀한 전통을 창조하고 곳곳이 고수해온 긍지높은 행로로 빛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국방위에 기여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워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고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가장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를 받는데서 인민군대가 기수, 돌격대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기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9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9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등의 글발들이 씌여져 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위업을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켜보며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도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지방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우리의 사상과 총대,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희들은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9돐을 기념하여 토론회를 가진 기회에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립니다.

김정일주석은 전세계 진보적인류가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전쟁애와 모든 정력을 인민들의 위업에 바치신분으로 추억되고 흠모를 받고계십니다.

그이께서는 조선에서 인민대중과 혁명

운동을 불패의것으로 결합시키신 혁명가 이시였습니다.

저희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의에 기초한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저희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들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 멀지 않은 장래에 꼭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영국정당, 단체들의 연합토론회 참가자일동

시대의 요구에 호응하여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은 전세계의 진보적력량에 고무될 안겨주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자주, 사회주의,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공동위업에서 조선인민과 어깨걸고 서있을것입니다.

주체100 (2011)년 4월 9일

련 단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뿌리는 불멸의 전승업적

전승혁명사적관을 지난 40여년 동안 연 710만여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참관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자리 잡고있는 전승혁명사적관으로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76 (1987)년 3월 몫소 이곳에 찾아오시어 전승혁명사적지를 잘 보존하여 우리 인민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관시켜야 한다고 하신 이후부터 참관자들은 더욱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사적관이 개관된 때로부터 지난 40여년동안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승로병들,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사적관을 계속 찾아옴으로써 참관자수가 연 71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가렬치절하였던 전화의 나날 조국과 민족의 운명,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의 뚜렷한 표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제국주의강적을 반대하는 투사들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주체의 인민군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어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승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계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의의깊은 곳이라고 하시며 여기에 사적비를 세워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도록 하여주시였다.

참관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적관에서 국가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후방을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전시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전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 전후 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 전승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등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되새기고있다.

사적지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사상과 이론,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를 심장으로 체득하고있다.

참관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전협정문건을 친히 검토하고 비준하여주신 집과 수많은 명령과 결정들을 채택하시며 군사위원회사업을 지도하신 곳, 권총사격터, 담화터를 비롯한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여러 사적건물들과 혁명사적물들앞에서 어버이수령님께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온 나라가 싸우는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승리할 배일을 그려 보시며 전후복구건설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혁명사적자료와 혁명사적물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우리 수령님의 천리헤안의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령군으로서의 위인상을 다시금 깊이 새겨 안고있다.

전승혁명사적관을 찾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전설적영웅으

로, 명장중의 명장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중국의 한 인사는 이 혁명사적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전체 인민을 령도하시어 미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을 이겨낸 조선인민의 승리의 상징이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에집트의 후판도이 사적관의 모든 사적물들과 장소, 사적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뵈었다고 하면서 사적관참관을 통하여 조선인민을 승리로 이끄신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실물로 볼수 있었다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전승혁명사적관을 찾는 수많은 참관자들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영원히 빛내이며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본사기자

조선의 불패성의 상징, 무적필승의 혁명강군

국제사회계가 격찬

희세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꿰뚫어 밟아나가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은 국제사회에서 선망과 찬란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민주공고신문 <라브니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진보적인류는 미국의 합의 정책애 단호히 맞서나가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히 그를 무력으로 뒤받침해주고있는 조선인민군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조선인민군은 선군으로 다져진 불패의 위력으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고있으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선군정치의 기수로서 정의와 평화수호에로 보보적인인류를 고무추동하고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 리네트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군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강철의 대오, 진기한 주체의 혁명적무장력이며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이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강력한 전쟁역제력을 갖추고 그 어떤 대적도 단애에 쳐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었다.

베루조선선문화협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도 따를수 없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기 환물을 서슴없이 내대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이 바로 조선인민군인들이다.

조선이 사회주의보루로, 세계평화의 수호자로 위용떨치고 있는것은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까르야>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힘찬 령결과 풍광사나운 바다길도, 겨울철의 추위와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시시찰은 조선인민군이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목숨바쳐 수호할 의지가 차넘치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철저히 준비되게 한

본요인이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병사들이 있어 최고사령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천이버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병사들을 나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베를어주시는 그의이 모든 지휘관, 병사들은 어떤 작전이나 전투임무도 천만히 담당수행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되었고 모든 군중, 병종들이 높은 타격력과 기동력을 가진 현대적무기들로 장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파키스탄조선선문화협회 라호르지부 서기장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결사옹위의 결정체로 공고화된 조선인민군은 조선의 불패성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이여가시는 현시시찰은 조선인민군이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목숨바쳐 수호할 의지가 차넘치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철저히 준비되게 한

[조선중앙통신]

혁명적군인정신, 일당백속도로 수도의 살림집건설에서 위훈을 창조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크나큰 믿음에 높은 건설성파로

당이 제시한 수도의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영양속도를 창조할 기세로 위훈을 떨쳐가는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인 일본새는 지금 큰 건설장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대에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살림집건설을 최대한에 올려놓으려면 무엇보다도 이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불같은 열의속에 살림집건설장은 불도가나마냥 세차게 뛰어다니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사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이상으로 뛰어들고있다.

웅장화려한 하나의 거리형성을 방불케 하는 다층살림집건설과정에 이미 여러 호동의 골조공사가 끝났는데 이어 나머지 대상들도 키투움하며 솟아올라 현장의 모습은 날이 변모되어가고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이 심장의 피를 끓이며 목욕히 새겨가는 위훈창조의 밑바탕에는 과연 무엇이 깃들여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최첨발진전선에서 헌신하고있는 이곳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이들이 수도의 살림

집건설에서도 앞장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선군혁명의 최상최대의 평가와 믿음은 군위부대로 자랑높은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을 대혁신, 대비약창조의 능수들로 되게 한 자랑분이었다. 하기에 이들은 자기들이 맡은 수백세대의 살림집건설에서 시간을 다투며 계속 혁신의 불결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부대장으로 지난 2월 중순부터 골조공작이 시작되던 조건에서 새롭게 맞닥뜨린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변의 시공단위들보다 자재소량이 늘어나고 살림집층수가 그만큼 높아져 건설기계들의 비뚤한 건설자재도 드립없이 보장해야 하는것이 이들에게 제기된 새로운 공사조건이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수행해야 할 공정절차와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다양한 건설기계와 지구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걸쳐 보여주기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모두가 맡은 작업에 보다 익숙할수 있게 로력을 한계 공정의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이 안받침된 전투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지휘관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능력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기반한 착상들이 연이어 나와 현실에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설비기능에 필요한 로력을 절반이나 줄이고 자재를 최대한 분할하여 쓰면서도 철근가공과 혼합물운반속도를 훨씬 높여주었다.

부대 살림집건설공사를 편속호흡식으로 원만히 추진하고있는 성과는 이렇듯 같은 로력과 자재로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 안아오는 귀중한 결실이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무들의 책임성과 주인다운 열의는 부대의 자랑으로 되고 있다. 부대지휘관들이 골재보장이자 공사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혁신적인 사색과 일본새로 찾아낸 방도들은 적지 않다. 지휘관들은 화물자동차운전사들과 골재수송기를 함께 달리면서 그들의 심장에 혁신의 불씨를 심어주고 어디서나 골재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으로 군인건설자들을 불려오게 지난 3월에 만도 수천㎡에 달하는 골재를 자체로 확보할수 있게 하였다.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고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지휘관들의

일본새와 힘찬 발걸음에 맞추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한결같이 일떠섰다. 부대에서는 구분대별사회주의경쟁을 실정에 맞게 특색있게 조직하고 총화회기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공사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속에 모든 군인건설자들이 어떤 어려운 작업공정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보배건설자, 보배기술공들로 자랑떨치고있다.

보람찬 건설의 나날에 차광철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현장투쟁에서 질풍같은 골재원천을 찾아내어 많은 연료를 절약하고 리영결, 기원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모든 공정수행에 앞서 휘몰

려온가공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벽체와 측방콘크리트기틀을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 있다.

최첨발진에서 발휘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공격속도, 일당백속도로 수도의 살림집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해제할 불타는 각오를 안고 대고조진군의 발구름소리를 높여가는 이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혁명적인 일본새로 하여 가까운 앞날에 손색없이 완공된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은 끝없이 넘쳐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지보도 승리의 정점이 보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시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지는 조선인민군 김원일소속부대가 맡은 살림집건설장이다.

지금 이곳 현장은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맡은 살림집골조공작이 날면 일출처럼 선명히 모래, 자갈을 붙이 번쩍 나게 혼합물이 넘쳐나고 있다.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크나큰 긍지와 책

임을 안고 공사를 다그치는 이들의 일손마다에 창조의 불바람이 일다. 혼합기와 권양기의 운전을 맡은 사관 리철은 등무가 수련된 솜씨로 설비들을 능숙하게 조종한다. 교에사마냥 벽체우에서 기발을 흔들며 조각을 부는 군인건설자의 신호에 따라 혼합물이 담긴 바가지가 벽체를 타고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편속 받아들이고 자재로 여러가지 설비와 기공도구를 만들어 리용하니 공사실적은 날이 높아만진다고 자랑삼아 말한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현장을 보면은 혁신적인 소식들이 연방 나날다.

혼합장의 전투원들, 콘크리트혼합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

오늘 콘크리트기틀까지 120% 넘쳐 수행!

시간이 지날수록 살림집조는 세계가 약속하는 비약의 승결과 더불어 승리의 정점을 향해 울려퍼질 기쁨을 한다.

설장의 벽한 결말로 하여 흥분된 마음을 견잡지 못하는 우리에게 군관 김광철동무는 이렇게 말한다. 《회전속도에 발맞추어 오줌 우리도 살림집건설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대의 군관, 사관, 병사들 모두가 한마음을 되어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편속 받아들이고 자재로 여러가지 설비와 기공도구를 만들어 리용하니 공사실적은 날이 높아만진다고 자랑삼아 말한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현장을 보면은 혁신적인 소식들이 연방 나날다.

혼합장의 전투원들, 콘크리트혼합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

오늘 콘크리트기틀까지 120% 넘쳐 수행!

시간이 지날수록 살림집조는 세계가 약속하는 비약의 승결과 더불어 승리의 정점을 향해 울려퍼질 기쁨을 한다.

성예의 혁신자들

조선인민군 리영결소속부대 군관 조병찬동무는 시공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유능한 지휘관이다. 그는 휘몰

려온가공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벽체와 측방콘크리트기틀을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 있다.

최첨발진에서 발휘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공격속도, 일당백속도로 수도의 살림집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해제할 불타는 각오를 안고 대고조진군의 발구름소리를 높여가는 이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혁명적인 일본새로 하여 가까운 앞날에 손색없이 완공된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은 끝없이 넘쳐나고있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조선인민군 리영결소속부대 군관 조병찬동무는 시공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유능한 지휘관이다. 그는 휘몰려온가공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벽체와 측방콘크리트기틀을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 있다.

최첨발진에서 발휘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공격속도, 일당백속도로 수도의 살림집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해제할 불타는 각오를 안고 대고조진군의 발구름소리를 높여가는 이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혁명적인 일본새로 하여 가까운 앞날에 손색없이 완공된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은 끝없이 넘쳐나고있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수행해야 할 공정절차와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다양한 건설기계와 지구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걸쳐 보여주기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모두가 맡은 작업에 보다 익숙할수 있게 로력을 한계 공정의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이 안받침된 전투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지휘관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능력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기반한 착상들이 연이어 나와 현실에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설비기능에 필요한 로력을 절반이나 줄이고 자재를 최대한 분할하여 쓰면서도 철근가공과 혼합물운반속도를 훨씬 높여주었다.

부대 살림집건설공사를 편속호흡식으로 원만히 추진하고있는 성과는 이렇듯 같은 로력과 자재로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 안아오는 귀중한 결실이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수행해야 할 공정절차와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다양한 건설기계와 지구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걸쳐 보여주기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모두가 맡은 작업에 보다 익숙할수 있게 로력을 한계 공정의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이 안받침된 전투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지휘관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능력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기반한 착상들이 연이어 나와 현실에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설비기능에 필요한 로력을 절반이나 줄이고 자재를 최대한 분할하여 쓰면서도 철근가공과 혼합물운반속도를 훨씬 높여주었다.

부대 살림집건설공사를 편속호흡식으로 원만히 추진하고있는 성과는 이렇듯 같은 로력과 자재로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 안아오는 귀중한 결실이다.

조선인민군 김원일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모든 공정계획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파악함으로써 건설초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합니다.》

건설현, 차광수동무를 비롯한 이곳 지휘관들이 살림집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주되는 힘을 넣은 중점문제에 하나가 있다.

그것은 군인건설자들의 기능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기에 건설경험이 부족한 군인건설자들이 빠른 기간에 철근과 휘몰려온가공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벽체와 측방콘크리트기틀을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 있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수행해야 할 공정절차와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다양한 건설기계와 지구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걸쳐 보여주기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모두가 맡은 작업에 보다 익숙할수 있게 로력을 한계 공정의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이 안받침된 전투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지휘관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능력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기반한 착상들이 연이어 나와 현실에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설비기능에 필요한 로력을 절반이나 줄이고 자재를 최대한 분할하여 쓰면서도 철근가공과 혼합물운반속도를 훨씬 높여주었다.

부대 살림집건설공사를 편속호흡식으로 원만히 추진하고있는 성과는 이렇듯 같은 로력과 자재로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 안아오는 귀중한 결실이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수행해야 할 공정절차와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다양한 건설기계와 지구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걸쳐 보여주기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모두가 맡은 작업에 보다 익숙할수 있게 로력을 한계 공정의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이 안받침된 전투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조선인민군 김원일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모든 공정계획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파악함으로써 건설초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합니다.》

건설현, 차광수동무를 비롯한 이곳 지휘관들이 살림집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주되는 힘을 넣은 중점문제에 하나가 있다.

그것은 군인건설자들의 기능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기에 건설경험이 부족한 군인건설자들이 빠른 기간에 철근과 휘몰려온가공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벽체와 측방콘크리트기틀을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 있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수행해야 할 공정절차와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다양한 건설기계와 지구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걸쳐 보여주기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모두가 맡은 작업에 보다 익숙할수 있게 로력을 한계 공정의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이 안받침된 전투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지휘관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능력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기반한 착상들이 연이어 나와 현실에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설비기능에 필요한 로력을 절반이나 줄이고 자재를 최대한 분할하여 쓰면서도 철근가공과 혼합물운반속도를 훨씬 높여주었다.

부대 살림집건설공사를 편속호흡식으로 원만히 추진하고있는 성과는 이렇듯 같은 로력과 자재로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 안아오는 귀중한 결실이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수행해야 할 공정절차와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다양한 건설기계와 지구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걸쳐 보여주기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모두가 맡은 작업에 보다 익숙할수 있게 로력을 한계 공정의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이 안받침된 전투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지휘관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능력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기반한 착상들이 연이어 나와 현실에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설비기능에 필요한 로력을 절반이나 줄이고 자재를 최대한 분할하여 쓰면서도 철근가공과 혼합물운반속도를 훨씬 높여주었다.

부대 살림집건설공사를 편속호흡식으로 원만히 추진하고있는 성과는 이렇듯 같은 로력과 자재로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 안아오는 귀중한 결실이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원일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모든 공정계획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파악함으로써 건설초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합니다.》

건설현, 차광수동무를 비롯한 이곳 지휘관들이 살림집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주되는 힘을 넣은 중점문제에 하나가 있다.

그것은 군인건설자들의 기능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기에 건설경험이 부족한 군인건설자들이 빠른 기간에 철근과 휘몰려온가공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벽체와 측방콘크리트기틀을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 있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수행해야 할 공정절차와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다양한 건설기계와 지구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걸쳐 보여주기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모두가 맡은 작업에 보다 익숙할수 있게 로력을 한계 공정의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이 안받침된 전투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지휘관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능력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기반한 착상들이 연이어 나와 현실에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설비기능에 필요한 로력을 절반이나 줄이고 자재를 최대한 분할하여 쓰면서도 철근가공과 혼합물운반속도를 훨씬 높여주었다.

부대 살림집건설공사를 편속호흡식으로 원만히 추진하고있는 성과는 이렇듯 같은 로력과 자재로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 안아오는 귀중한 결실이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수행해야 할 공정절차와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다양한 건설기계와 지구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걸쳐 보여주기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모두가 맡은 작업에 보다 익숙할수 있게 로력을 한계 공정의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이 안받침된 전투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지휘관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능력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기반한 착상들이 연이어 나와 현실에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설비기능에 필요한 로력을 절반이나 줄이고 자재를 최대한 분할하여 쓰면서도 철근가공과 혼합물운반속도를 훨씬 높여주었다.

부대 살림집건설공사를 편속호흡식으로 원만히 추진하고있는 성과는 이렇듯 같은 로력과 자재로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 안아오는 귀중한 결실이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원일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모든 공정계획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파악함으로써 건설초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합니다.》

건설현, 차광수동무를 비롯한 이곳 지휘관들이 살림집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주되는 힘을 넣은 중점문제에 하나가 있다.

그것은 군인건설자들의 기능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기에 건설경험이 부족한 군인건설자들이 빠른 기간에 철근과 휘몰려온가공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벽체와 측방콘크리트기틀을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 있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수행해야 할 공정절차와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다양한 건설기계와 지구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걸쳐 보여주기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모두가 맡은 작업에 보다 익숙할수 있게 로력을 한계 공정의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이 안받침된 전투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지휘관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능력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기반한 착상들이 연이어 나와 현실에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설비기능에 필요한 로력을 절반이나 줄이고 자재를 최대한 분할하여 쓰면서도 철근가공과 혼합물운반속도를 훨씬 높여주었다.

부대 살림집건설공사를 편속호흡식으로 원만히 추진하고있는 성과는 이렇듯 같은 로력과 자재로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 안아오는 귀중한 결실이다.

이들은 긴장한 작업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로 진격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작업진동, 경제선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여기 저기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현장은 잠들 줄 몰랐다. 공사를 지휘하는 전란식, 박성도, 최용남 등무들의 뒤를 이어 자재보장사업을 맡은 문철, 김영룡 등

수행해야 할 공정절차와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다양한 건설기계와 지구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여러차례 걸쳐 보여주기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모두가 맡은 작업에 보다 익숙할수 있게 로력을 한계 공정의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이 안받침된 전투적으로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지휘관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능력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기반한 착상들이 연이어 나와 현실에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설비기능에 필요한 로력을 절반이나 줄이고 자재를 최대한 분할하여 쓰면서도 철근가공과 혼합물운반속도를 훨씬 높여주었다.

부대 살림집건설공사를 편속호흡식으로 원만히 추진하고있는 성과는 이렇듯 같은 로력과 자재로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 안아오는 귀중한 결실이다.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며 백승을 떨치는 혁명적무장력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때로부터 7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 우리 인민군대는 승리와 영광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기의 성스러운 기록에 새겨왔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영광스러운 경력을 감히 잊지 못하며 높이 찬양하고있다.

《강력한 핵억제력까지 갖추고 공격과 방어도 다 준비된 필승의 강군이 바로 조선인민군이다.》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강적도 쳐물리칠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있다.》

《조선인민군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으며 나라를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철의 보루로 강화하고있다.》

《조선인민군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에 대한 만민의 찬탄의 목소리는 뜻깊은 순간에 즈음하여 행성에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들어켜보면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자랑찬 로정은 전세위인들의 손길에 배무산혁명강군으로 존엄철칙 역사적인 나날이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군사의 영예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웅적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으로써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었다.

지난해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조선인민군장전

기념일을 맞으며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지난 기간은 회세의 명장들을 모시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력사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이때로부터 조선에서는 무장투쟁을 주류로 조국해방위업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선이 해방되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인민군은 미제가 일으킨 3년간의 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전후 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국과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군사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조선인민군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김일성주석과 사령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있다.

김일성주석과 사령관께서는 지난 세기 90년대 나라앞에 조선된 업적을 전세에 대치하여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군력강화에 큰 힘을

넣으시였으며 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조선인민군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를수단으로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조국보위뿐아니라 사회주의강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회세의 명장 김일성주석과 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앞으로는 백승의 력사만을 펼쳐갈것이다.》

그렇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백승만을 펼치는 백무산혁명강군으로,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못하는 무적필승의 강철의 대오로 자라날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출유인인 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받들어온데 그 비결이 있다.

민주공화국인 《브레즈네프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전을 모시고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무적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혁명의 장엄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며 성장시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찌기 현대적인 군사과학리론들을 정력적으로 탐독하신데 대하여, 전체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대오의 사상적지적단합을 공고히 하신데 대하여 전하면서 미국이 수많은 핵무기와 최첨단군사장비들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감히 조선에 법집하지 못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브라질정당, 단체들은 영웅적 조선인민군장전 79돐에 즈음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끊임없는 현지시찰로 인민군인들을 펼칠 나라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시고 군사강국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시는데 대하여, 우리 사회에 군민단결의 전통적인 미풍을 활짝 꽃피워주시고 온 나라에 군사중시기를 확립해주시였으며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는데 대한 내용을 담은 글을 실었다.

《조선의 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이다, 조선에는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법집할수 없게 하는 군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글에 계속하여 글은 김일성주석과 사령관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끊임없는 군현지시찰로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높이 찬양하였다.

로씨야신문 《브레즈네프의》는 《김정일, 불패의 강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의 위엄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이 나라를 불패의 군사강국

으로 위용떨치게 한 근본담보로 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최첨단강군으로 튼튼히 꾸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에서 군인들의 전투적흥분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조선사회에 군민단결의 전통적미풍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소환의 강수위와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서도 귀찮이 군현지시찰의 길을 걷고걸으며 인민군장병들에게 친부모의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수위에 높고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법집 못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굳이 위용떨칠것이다.》

최고사령관을 높이 받들고 그 기록에 백승의 력사만을 새겨가는 조선인민군,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뛰어난 군사적재능과 영웅적,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전군이 그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데 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앞으로 도 강적에 대한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조국수호, 사회주의수호전과 강대국건설대진전에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신경섭

대결광신자의 단말마적발악

동족대결에 환장한 현인택이 며칠전 《국제학술회의》에서 현재 조선반도 《안보》상황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지금까지 저들이 그 무슨 평화유지를 위해 대화노력을 해왔다는 실로 얼토당토않은 꾀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북남대화 가 열려도 《천안》호사건과 《비핵화》에 대한 그 누구의 《진지한 태도》가 없다는 《결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제쳐뒀다. 다른 곳에서도 지금 필요한것은 북이 주장하는 무조건적대화가 아니라 그 무슨 《사과》에 기초한 《진정성 있는 대화》라고 떠벌어대면서 《북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미래는 담보될수 없다.》고 고아했다. 그야말로 대결광신자의 파멸적인 생역지로 우리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다.

오늘 북남관계를 침에한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폭로된 바와 같이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초기부터 오늘날까지 반동일적인 《대북정책》을 내내두고 북남대화 와 협력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파탄시키면서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수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뿐만아니라 외세와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정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왔다.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켜 온것은 다름아닌 남조선보수당국이며 그 앞장에서 대결의 북풍을 미친듯이 두드려대듯이 바로 현인택역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이 저들이 그 무슨 평화유지를 위해 대화노력을 해왔다.》고 떠들어대었으니 얼마나 뻔뻔스러운자인가.

북남관계개인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과 필자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의 현 《경건》이 집권초기부터 《비핵, 개방, 3000》파위의 대결정책을 내내두고 외세와 함께 우리를 에워보고 미쳐달려왔지만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이 귀중하기에 모든것을 참고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아랑과 자제력을 가지고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현인택이 이 엄연한 사실을 묻어두고 《진정성》타명을 아무리 늘어놓아야 그것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현인택이 우리에 대해 그 무슨 《사과》를 고집하며 《태도변화》를 운운한것 또한 역겹기 짝이 없다. 《천안》호사건이 우리의 북남대화노력에 제동을 걸고 동족대결을 더한층 격화시켜 북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흉계밑에 남조선호전파들이 조작해낸 사상 류메없는 특대형모략극이라는것은 이미 드러내대로 드러났다.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이 입만 터지면 부르짖고있는 《사과》와 《태도변화》란 북남대화를 거부하기 위한 방편일따름이다.

현인택역도의 잇달은 대결방발은 대화로 나아가는 정세흐름을 가로막고 저들이 처한 궁색한 처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의 총파산으로 인하여 남조선당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남조선 각계와 세계여론들은 대화와 협상으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할데 대한 우리의 중대제안을 열렬히 지지찬동하면서 남조선당국이 하루빨리 《대북정책》을 전면하고 관계개선의 길에 나설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바빠맞은 보수파당이 그 누구의 《책임적인 조치》를 대외의 전제조건으로 내내두고 대결분위기를 고취함으로써 대화를 회피하고 내외의 고립에 서 벗어나보려고 피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우리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야망만이 짙 들어차있다는것을 여지없이 입증해 주고있다.

북남관계의 미래에 먹칠을 하는것은 다름아닌 현인택역도와 같은 남조선의 대결미치광이들이다. 현인택역도가 유일무이 장관자리에 틀고앉아있는 한 북남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남조선 각계가 현실같이 주장하고있는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현인택은 남조선당국에 있어서도 우환거리이다. 이런자가 권력의 자리에 남아있는 한 화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현인택역도를 하루빨리 정치무덤에 처박아야 한다.

심철영

영원히 빛날 선군혁명의 위대한 력사

영웅적조선인민군장전 79돐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기자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백두의 명장들을 높이 모시어 우리 민족은 자기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주체의 선군위업의 개척자이시다. 일찌기 아버님으로부터 두자녀의 림총을 물려받으신 그이께서는 주제 21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재능과 탁월한 령군술로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였다.

선군혁명의 위대한 력사는 영원히 빛나고있다.

백승의 선군정쟁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선군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암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그것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선군정쟁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계신다. 【조선중앙통신】

남녘의 애국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세계의 주요신문, 통신, 방송 등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광범히 소개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으신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남녘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모시어 민족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반제민족의 전위투사들과 남녘의 애국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쟁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민공청산문제에 대해 언급

칠레대통령 세바스티안 베네라 에나리가 22일 민공청산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금 50만명의 주민들이 극심한 민공청산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2020년까지 나라에서 극빈자를 완전히 없앨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히고 그는 모든 주민들이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펼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배격

중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미국무성의 《2010년 나라별 인권보고서》에 대응하여 최근 《2010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하였다.

문건은 미국이 《나라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 인권상황을 또다시 부당하게 비난하면서도 저들의 한심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무시하였다고 지적

하였다.

미국은 인권기록이 매우 한심하여 세계 《인권옹호자》로 자처할 자격이 없다고 문건은 강조하였다.

【메이징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서 레닌 탄생일 기념

【모스크바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웨. 이. 레닌 탄생 141돐 기념행사가 22일 로씨야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모스크바에서는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에 화환을 진정하는 의식이 있었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직업동맹 조직들, 로빙단체들, 베오네르 조직들을 비롯한 정당, 단체 대표들이 수천명의 각계층

시민들과 함께 화환진정식에 참가하였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지도자 전자진 주가노브는 의식에서 연 연설에서 인류앞에 쌓아올린 레닌의 업적은 어제도 오늘도 कै도 영원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화환진정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레닌의 초상화와 붉은기발을 들고 《레닌은 살아있다.》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붉은 광장을 행진하였다.

같은 날 샤프트-베제프부르그시, 갈루자구 등 로씨야의 많은 도시와 지역들에서 레닌의 기념비에 화환과 꽃송이를 진정하는 의식, 연구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조직되었다. 또한 영웅관들을 시는 레닌의 혁명정쟁을 보여주는 기록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집단적인 야스구니진자참배늘음

일본에서 22일 국유이적쟁탈의 집단적인 야스구니진자참배늘음이 벌어졌다.

이날 《모두가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는 국외의원도입》에 소속되어있는 54명의 국외의원들이 무리로 야스구니진자로 몰려가 군국주의를 고취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처사를 단죄

팔레스타인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총비서 야시르 아베드 라브가 20일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단죄하였다.

최근 미국이 팔레스타인독립국가인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데 따라 창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독립국가에 대한 국제적인정을 받기 위한 민족당국자의 계획을 반대해나선것과 관련하여 그는



뻘뜨꾸갈에서 실업문제해결을 요구하여 시위

오늘의 세계

《단결만이 살길이다.》 이것은 최근시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들고나가는 구호이다.

단결의 중요성은 지난날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억압에서 살아온 발전도상나라들 특히 미국과 코를 맞대고있는 라틴아메리카지역 인민들이 더욱 깊이 느끼고있다.

얼마전 우루과이를 방문한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지역 나라들사이의 단결은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는 담보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가 말한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있어서 단결은 곧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직결되어있는 절실한 문제이다. 이 나라들은 단결에 자기의 힘의 원천이 있고 승리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반미자주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며 호상 연대하고있다.

오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나가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움직임이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시대는 달라졌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국제관계준칙을 무시하고 고지적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내장간쟁과 자주권침해책동을 일삼는 미국의 오만한 처사에 침을 뱉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독단과 전횡을 허용하던 그들이 더욱 파멸치하게 행동하며 나중에는 더 큰 침략의 길로 나간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이것을 느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알바, 남아메리카국가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국가구등 지역적력동맹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독단과 전횡, 지배주의책동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나가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호상 협조와 교류를 통하여 사회적제분야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룩하고있는것도 주목되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번영을 이룩해오려고 하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나라들사이의 협조가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그것도 소규모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오늘날에 와서 이 나라들은 에네르기, 식량, 금융, 과학, 안전, 국방, 보건, 체육 등 사회경제생활의 전반에 걸쳐 쌍무적, 다수적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부닥치는 단판들을 이겨내고 새 사회건설을 다그치고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려고 하고있다.

에네르기적조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에네르기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에네르기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리용가능한 에네르기자원은 극히 제한되어있다. 원유가격이 또한 계속 상승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캐리브공동체 선원국들의 에네르기상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하고있는 현실에 대처하여 지역적인 원유가격을 규정하고 그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에네르기정책이 작성되었다. 선원국들은 원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조를 강화하려고 합의하였다.

최근 구와와 빠라파이는 문명퇴치를 위한 사업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에, 볼리비아와 브라질은 반마약투쟁과 기타 여러 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3분야의 협정에 조인하였다.

단결과 협조정신을 발휘하여 미국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며 지역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투쟁은 날로 강화발전되고있으며 좋은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전영희

해적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

국제적으로 해적행위가 계속 성행하고있다.

지난 14일 국제해사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올해 1, 4분기에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해적들의 공격행위는 142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중 소말리아해에서 발생한 해적들의 공격행위는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건 더 늘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해적행위는 소말리아해에서 일어나고있다.

얼마전에도 아덴만에서 2척의 소형보트에 탄 해적들이 쿠웨이트의 유조선에 로켓탄 등으로 공격하고 랑치하였다고 한다. 유조선에 타고있던 20여명에 달하는 승조원들이 인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해적들은 선박들을 기습공격하고 랑치하여 약 1200명을 인질로 억류하였다고. 그들중에는 해적들에게 몸값으로 출한 돈을 주고 풀려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살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소말리아해적들의 해적행위가 갈수록 교묘하고 횡포해지고있다. 그들은 대형선박에서부터 작은 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유조선이든 화물선이든 가리지 않고 공격대상으로 삼고있다.

해적들은 랑치한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고있기 때문에 인질안건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소말리아해적들의 활동범위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그들의 선박탐지행위는 심지어 소말리아해에서 수천km 떨어진 모잠비크해협과 인디아양의 동부해역에서도 벌어지고있다.

날로 횡포해지는 해적들의 해적행위를 두고 세계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해적행위를 방지하고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선박들의 안전대책시설을 리용하는 문제가 해적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술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이 새로운 전술이란 해적들이 침투할수 없도록 설치된 선실에서 선박의 항해를 계속하며 주변수역에서 활동하는 국제연합군의 함선들과 합동대공작전을 진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여러 나라 해군들이 해적들을 해군함선들이 이 인질술로 해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있다고 한다.

가장 위험한 해적들에서 여러 나라 군함들의 공동작업으로 해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이 적용되고있다. 실제로 인디아양에서는 현재 유럽동맹국과 중국, 로씨야, 인디아 등 나라들의 해군함선들이 해적행위 방지와 해적소탕활동을 벌리고있다.

한편 제포된 해적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도이칠란드당선을 공격하다가 제포된 해적 10명에 대한 재판이 도이칠란드의 함부르크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제포된 해적들은 대다수 무장해제되고 석방되는 것이 레사사로 되고있다. 그들이 다시 무장을 갖추고 해적행위를 해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여론들은 개탄하고있다.

유럽동맹 해적소탕작전 부서령한인 도이칠란드해군제독 토마스 에르스트는 해적들이 제포되는 확률은 상당히 낮을뿐아니라 제포된 해적들이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말하였다.

올해 초 소말리아해에서 감행된 해적행위와 관련한 유엔안보리사회 공개회의에서 유엔법률문제를 담당하는 고위관리는 모든 나라들은 해적행위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해적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해도 또 그 혐의자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든 관계없이 매개 국가들은 해적행위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유엔무대에서 해적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해적행위방지과 해적소탕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기울여지고있지만 해적투쟁이 성과를 거두지

않고있다.

의심들은 선박들의 자체보호 기능과 국제연합군 함선들의 반해적능력을 높이는것이 해적활동을 일정한 정도 억제할수 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차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있다.

해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해적문제의 근원을 없애는것이다. 현시기 세계적으로 가장 우선하게 나라는 소말리아해적들의 해적행위문제를 놓고보면 그 밑바탕에는 장기간에 걸친 소말리아에서의 불안정과 정치, 경제적혼란 상태가 놓여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소말리아는 오랜 기간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과 서방이 강요한 《다당제민주주의》 실시후파로 소말리아는 극심한 혼란과 무정부상태에 처해있다.

소말리아의 이러한 정치적혼란과 사회경제적파괴사태로 하여 이 나라 앞바다에서 해적행위가 성행하고있다.

국제여론들이 소말리아에서 강행한 정권을 수립하고 정치적안정을 회복하며 사회경제적파괴를 가시는 기간이 이 지역에서의 해적행위방지와 해적소탕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있는것은 일리가 있는 견해이다.

본사기자